



입상자 전원과 김양욱 전북 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장과 황의욱 전국장애인가요제 제전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번만큼은 '나도 가수다'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세은(사진 왼쪽)씨.



금상을 차지한 한두선(경북 김천)씨.



가요제에서 열창을 벌이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왼쪽부터 박태홍, 이미화, 이세은, 강창일, 송영복씨.

장애인의 문화예술참여 확대를 위해 '제13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가 지난 19일 오후 2시 30분에 화려하게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요제와 함께,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북회와 자매결연협약식이 열렸다.
 또한, 공로 표창장 시상식과도 병행했다.
 이날 주요 입상자로 이세은(익산)씨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으며, 금상에 한두선(경북 김천)씨, 은상에 강창일(충남 예산)씨와 류명현(익산)씨가 차지했다.
 동상에 김영욱(정읍)씨와 조연형(고창)씨, 장려상에 송영복(전주)씨와 박태홍(대구 북구)씨, 인기상에 배차영(광주 북구)씨와 유영식(전주)씨 등이 차지했다.
 /김재훈 기자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과 황의욱 가요제 제전위원장.



개회식에 참석한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사진 왼쪽).



인사말 하는 김양욱 소장.



대한물리치료사전북회와 자매결연 협약식.



가요제에 참석한 600여명의 관람자들.



축사를 하고 있는 정동영 국회의원.



공로 표창받는 강금남 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이사.



공로자로 공로패 받는 김숙희 부대표.